

Hospital Architecture in China-3; The Latest Trends in Healthcare Policy & Market

중국의 병원건축-3; 의료정책 및 시장의 최근 동향

Son, Jae-won 손재원 (중국청도이공대학 국제학부 건축학과)

최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의 고속성장 중심에서 중저속성장(신상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폭락, 위안화 환율 파동, 은행 부실채권 문제 등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중국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 青島市)의 한 대규모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2015년말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전체 직원 중 약 3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여타 관련 업계도 비슷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국영업체보다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민영업체의 구조조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 후 15년간의 시장개방 유예기간이 2015년 7월말로 종료되면서 지금까지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던 교육, 의료, 건설시장 등이 점차적으로 확대·개방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한·중 FTA의 실질적인 발효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또한 최근 중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정책과 시장의 최근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대 중국 의료시장 참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의 주요한 의료정책 및 시장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후 의료시설의 리모델링 및 신축 프로젝트

최근 중국은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일반 대중의 공공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후 의료시설의 리모델링 및 신축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 성(省)의 1선 도시 및 직할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의료시설 프로젝트의 경우 선진 외국사(외자기업_外資企業)와의 합작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합작 프로젝트에서 외국사의 역할은 메디컬 플래너(Medical Planner)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투자발주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공병원의 민영화* 정책 추진

중국은 우리와 반대로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은 민영병원에 비해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의식 수준 향상과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특정 병원(중국의 병원분류에서 가장 상위 개념의 특등/급급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다수의 공공병원을 점진적으로 민영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대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성 질환 및 아동 전문병원의 증가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관련 전문병원이 대도시인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 3선 도시로까지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환자수에 비해 관련 전문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향후 노인성 질환 관련 전문병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의 직할시와 각 성(省)의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동전문병원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아동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전문병원도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과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건강진단 및 요양이 가능한 복합휴양시설: 도가촌(度假村)

중국인들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도가촌(度假村)이라는 간단한 건강진단과 요양이 가능한 복합휴양시설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가촌(度假村)의 사전적 의미는 리조트(Resort) 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휴양과 숙박 위주인 우리의 리조트 시설과는 다르게 숙박과 휴양 이외에 간단한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요양시설도 갖추고 있어 휴양과 요양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계획된 대부분의 도가촌은 주로 도심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원거리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심 내 직장인처럼 장기간의 여가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도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여기서 언급된 '민영화'는 우리와 다른 개념으로서, 소유주는 변함없이 국가이나 병원의 관리나 운영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감염성 질환 전문병원의 현대화 및 신축 프로젝트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_MERS' 사태에서도 제기되었던 '원내감염' 문제가 한국의 병원시설 계획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중국은 이미 약 10여년 전부터 각 성급 1선 도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의료 대응체계의 보완과 동시에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의 현대화 및 신축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에 있다.

6. 의료 종사자의 수준 향상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정책

중국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있고, 전국 규모의 의료시설 현대화와 신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료 종사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그 의료수준 또한 경쟁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고급 의료 관련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의료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수한 신진 의료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최근 중국의 의료정책과 시장은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한류(韓流)를 등에 업고 성장한 미용 및 성형 중심의 의료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금은, 관련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중국 의료시장 참여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